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지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음 8월 4일) 제213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 되세요'

### 전북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고속버스 서울·인천 등 35대 예비차 투입 운행  
철도, 무궁화호 등 12회 증회  
터미널 환경정비 중점 실시

전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갈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귀성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은 5일간으로 연휴기간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은 16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연휴 첫날인 22일 오전부터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늘어나 추석 당일인 23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고속버스 서울, 인천 등 주요 노선에 대해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35대 예비차를 투입 운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철도는 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10회 등 왕복 총 12회 증회 운행할 예정이며, 시외버스는 추석 연휴 당일 승객 수요에 맞게 예비버스를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추석 명절 대비 귀성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터미널 환경정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연휴기간 동안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해 수리할 곳을 찾지 못하는 귀성객과 도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동안 정비업체 38개를 지정하여 긴급정비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공원묘지 14개소에 성묘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도록 교통안내 요원을 주요 요소에 배치하여 원활한 주차관리 등을 지원하고 주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귀성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상습정체 및 병목구간에 대해서는 시군 및 경찰청과 협조하여 정체구간 발생 시 대체 우회도로 안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지도단속, 재래시장, 대형마트, 교통소통 지도점검 등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도 및 시군에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귀성객들의 교통정보 지원, 교통 불편 민원처리, 긴급정비 서비스업소 안내 등을 지원하고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국체전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이 12일 익산시 팔봉동 익산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경찰특공대가 레펠을 타고 건물 외벽을 내려오고 있다.

### 훈련을 실전처럼... 전국체전 맞아 대테러훈련

전북지방경찰청은 12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익산종합운동장에서 대테러훈련을 실시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전북지방경찰청과 국경원, 35사단,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익산경찰서, 익산시, 익산소방서 등 6개 기관 200여명과 헬기, 장갑차, 제독차량, 구급차량 등 30여대의 장비가 동원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종합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장 내, 외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테러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민, 관, 군의 협업체제 확립 및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 내용은 최근 테러 동향에 따라 드론 및 차량이용, 화학 테러 등 복합적인 테러상황을 대비하여 진행됐다.

전북경찰청장(강인철 차안감)은 "이번 훈련을 통해 테러상황 발생 때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안전한 대회를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테러예방에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송호철 기자

## "사회적경제 이끌도록 최선"

김승수 시장,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취임

김승수 전주시장(사진)이 공평한 경제활동과 모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을 책임질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12일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전국 사회적경제 주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4기 출범식 및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와 효율적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전국 3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와 포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김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동체 속에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치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호철 기자

## "발달장애인 배제되지 않는 포용국가 만들 것"

문 대통령, 평생케어 초청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애환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그런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이 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3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그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이 든다"며 "부모님들도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으로 힘들다. 우선 혼자서 수업을 잘 못하니 부모들이 하루 종일 돌보아줘야 한다"고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13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을 거론하며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춘

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약 하자면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보육·교육, 그 다음에 돌봄·직업 훈련·취업·경력 관리 등 이런 전 생애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돌봄을 드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한다"면서도 "그래도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더 크게 확대해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기간 내에 더 크게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서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22일 석방

대법원, 구속기간 만료 따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석방된다.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동일한 사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지난 10일 조 전 장관 구속 작권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23일 문화계 지원배제(직권남용)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따라서 이날 22일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간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 받은 상태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1000주년 기념 행사

진안홍삼축제에서 신나게 즐기고! 진하게 마시고! 힘차게 달려라!

# 2018 진안홍삼축제

10.18(목) ~ 21(일) | 마이산 북부 일원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60)

**10.18(목)**

- 번개맨 특별공연(11:00 / 13:00)
- 개막축하행사(17:00)
- 진안홍삼노래자랑(진시몬, 지원이 출연)

**10.19(금)**

- 또봇퍼레이드(3회 공연)
- 1019청소년콘서트(리듬파워, 빈첸 출연)

**10.20(토)**

- 대한민국트롯페스티벌 (송대관, 주현미, 김연자, 박상철, 김용임, 한혜진, 설하윤, 박서진, 서지오, 장민호 출연)

**10.21(일)**

- 진안사랑음악회(14:00)
- 고려홍삼왕 선발대회(16:00)

**상설체험**

홍삼연못 금거북이를 찾아라, 홍삼슬라이드체험, 홍삼낚시체험, 엽기홍삼가래떡뽑기, 홍삼에버랜드, 홍삼족욕체험, 홍삼사포닌버블탕, 홍삼경매, 홍삼카탈레쇼, 김치담그기 체험

진안홍삼축제기간(10.18~21)동안 진안군(축제장 사용분 제외)에서 10,000원 이상 사용한 카드결제 영수증을 축제장에 가져오시면 광업은 홍삼축제복권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jinanfestival.com](http://jinanfestival.com) 문의처 063)430-2391~2393